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2017.10.9.(월) 조간	배포	2017.10.8.(일)	
책 임 자	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유영준(02-2100-2880)		담 당 자	김미정 사무관 (02-2100-2881)	

제목 :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「금융안정위원회(FSB) 베를린 총회 참석 결과

1. 회의 개요

- 10.6일(금) 독일 베를린에서 금융안정위원회(이하 FSB*) 총회가 개최
 - * FSB : Financial Stability Board, 영란은행 Mark Carney 총재가 의장
 - FSB는 '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 규제 논의체로,
 -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
 - 24개국 + EU의 중앙은행, 금융당국 및 금융규제 국제기준 제정기구 (BCBS, IOSCO 등)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여하였으며,
 - 한국측 멤버로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참석
 - 금번 회의는 지난 7월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, 내년도 아르헨티나 G20 보고과제를 주로 논의

2.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

-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에 글로벌 금융시스템 건전성 강화와 성장 모멘텀 유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,
 - 한국 신정부의 금융정책의 초점이 “생산적 금융”, “일자리 창출” 및 “포용적 금융”에 있다고 설명
 - *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로서 금융 안정성 확보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,
 -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

- 아울러 북핵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와 관련하여, 한국 정부는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긴장 완화 및 경제·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
- 이와 함께 사이버 리스크와 같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
- 또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있어 향후 한국이 개도국으로서의 경험 공유 등 더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발언

3. 주요 논의 결과

① FSB 2017-2018 운영 방향

- FSB 회원들은 위기 이후 추진되어온 금융규제 개혁 작업이 거의 완수(nearly completed)된 것으로 평가
 - 다만, 일부 주요 정책과제들이 완전하게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진단 하였으며, 합의된 과제의 이행 확보 및 지속적 점검의 중요성에 공감
- 아울러, 향후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 (사이버 보안 등 신규 리스크 요인 포함)에 대해 논의

②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

- G20 정상들은 함부르크 정상회담에서 그간 추진되어온 금융규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“정책 평가 체계(the policy evaluation framework)”를 승인하였으며,
 - FSB는 첫 번째 과제로 “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 (incentives to centrally clear)” 평가 작업을 진행중(18.下 완료 계획)
- 금번 회의에서는 추가 평가과제로 “금융개혁이 금융 중개 (financial intermediation)에 미치는 영향”을 선정

- 동 작업은 ①인프라 투자 자금조달 동향(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전 완료 계획) 및 ②다양한 자금조달 방법별/차주별*/국가별 자금중개 동향에 대한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 예정

* 예 : 중소기업 금융 vs 대기업,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vs 시장기반 직접금융, 인프라 및 기타 장기투자 등에 대한 영향 분석

- 김부위원장은 동 작업은 그간 금융시장 안정 및 위기에방을 위해 추진해온 금융규제개혁 과제들이 한정된 자금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“금융 본연의 기능”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“생산적 금융”, “포용적 금융”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

③ 사이버 보안 이슈 점검

- FSB가 G20의 요청에 따라 진행해온 사이버 보안 문제 대응을 위한 각국 규제·감독체제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으며,
- 사이버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 점검할 계획

④ 금융회사 위규행위 대응방안

- FSB는 금융회사의 위법·위규행위(misconduct risk)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,
- 조만간 발표예정인 “주요 지표금리 개혁 경과 보고서*”를 승인

* ‘14년 FSB는 LIBOR 조작사건과 은행간 조달시장 축소를 계기로 ①주요 지표금리(LIBOR, EURIBOR, 통칭 ‘IBOR’) 강화와 ②무위험 지표금리(risk-free benchmark rate, ‘RFR’) 개발을 권고

5 기 타

- FSB 논의의 중점이 정책개발에서 “G20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 및 영향 평가”라는 새 단계(new stage)로 전환됨에 따른 FSB 운영절차 효율화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검토기로 합의
- Svein Adresen 사무총장의 임기 만료('18.1월)에 따라 Dietrich Domanski(BIS 통화경제국 부국장)를 후임으로 선정

※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	---	---

- (개요) 금융안정위원회(FSB, Financial Stability Board)는 G20 합의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며,
 -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, 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 수행
 - * '99년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(FSF)이 '08년 금융위기를 극복과정에서 신흥국을 포함하는 G20 참여 기구로 개편, '09년 4월 출범
 - 금융위는 '09.6월 가입(한은과 공동 가입)한 이래 총회, 운영위원회, 규제·감독 협력 상임위원회 등 고위급 회의를 비롯하여
 - ReSG(정리체계 실무 그룹), CBCM(국경간 위기관리그룹), FIN(금융 혁신 네트워크) 등 실무논의에도 적극 참여중
- (구조) 모든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총회와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, 분야별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
 - 24개국 + EU*의 59개 회원기관과 10개 국제기구** 참여
 - * 미국, 프랑스, 영국, 독일, 일본, 이탈리아, 캐나다, 아르헨, 호주,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니, 한국, 멕시코, 러시아, 사우디, 남아공, 터키, EU (이상 G20) 및 네덜란드, 스페인, 스위스, 홍콩, 싱가포르
 - ** OECD, BIS, IASB, CGFS, CPMI, IMF, World Bank, BCBS, IAIS, IOSCO

